

Stage&Exhibition

에디터 윤병욱(프리랜서)



• 정교하게 들려오는 피아노의 선율

우승과 동시에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다는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의 1994년 우승자 니콜라이 루간스키가 내한 독주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1978년 대회 우승자인 미하일 플레트네프와 1990년 우승자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에 이어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 루간스키는 1993년 샌프란시스코 독주회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루간스키의 스승 타티아나 니콜라예바가 러시아 피아니스트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지목했을 정도로 일찍이 실력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다. 뛰어난 테크니션인 그가 연주하는 베토벤과 쇼팽의 소나타 등은 5월 13일 LG아트센터에서 들을 수 있다. 문의 541-6234

•• 영화 이미지로 표현된 잔혹한 패션

맛있는 저녁을 기본 좋게 먹은 후 TV를 켜 당신은 뉴스에서 전하는 사건 현장을 본다. 때론 듣기에도 끔찍하지만 이미 그런 사건에 무감각해진 듯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달콤한 잠자리에 든다. 멜라니 풀른은

이런 현대인에게 이미지의 충동을 야기하는 사진작가다. 사진 속 살인 사건의 현장에는 프라다, 구찌 등의 명품을 입은 피해자들이 등장한다. 패션 사진과 사건 사진의 경계에 있는 것이 멜라니 풀른 작품들. 기괴함으로 충격을 전달하는 당대 미술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지만 그녀의 사진은 누벨바그 영화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 <High Fashion Crime Scene>의 시리즈로 진행되었고 한국 첫 전시회는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화이트월 갤러리에서 열린다. 문의 548-7520

••• 관객에게 들려주기 위한 중얼거림

갤러리 도스에서 기획한 <김복수: 중얼거림>은 김복수가 종전에 보여주던 아크릴 작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드로잉 요소를 더욱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재현과 비재현 사이에서 부유하며 새로운 의문을 던지기 위해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흐트러뜨리고, 유사성 없는 이미지를 재현한다. 작가의 작업이 이중성, 아이러니, 비생산적 효과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지금

히 개인적인 김복수의 드로잉 작업에 의미를 더하는 것은 작가가 바라듯 관객 개개인의 해석이 작품의 최종 완성이라는 것. 전시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문의 735-4678

•••• 복제된 아들과 복제된 아버지의 대화

복제는 최근 한국의 가장 큰 이슈였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 그렇다. 각종 매스컴을 접하며 마치 인간 복제가 곧 가능할 것처럼 여겼을 정도였다. 그 사건의 내막이 어떠하든, 윤리적 잣대의 기준이 어떠하든 우리는 기술만 있다면 복제해야 한다고 여기게 됐다. 극단 켈티즌의 <넘버>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은 '인간 복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가'다. 세 명의 복제된 아들 역에 권해효가, 아버지 역에는 이호재가 출연한다. <넘버>는 스타일의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법을 모색하는 영국 작가 카릴 처칠의 2002년 신작.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공연된다.

문의 765-5475



에너지 넘치는 대장정, 형제자매들 연극 <형제자매들>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총 7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연 관람에 도전의식이 느껴질 정도로 녹록지 않은 긴 시간. 혁신적인 공연 준비로 각광받는 연출가 레프 도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말리 극장의 예술 감독이며 연출가. 그는 작품 제작을 위해 고전과 현대 문학을 막론하고 선별한 작품을 배우들과 함께 읽어가며 작품을 완성해간다. 이런 개성 강한 연출 방식의 공연은 그와 말리 극장에 세계적인 찬사를 안겨주었다. 그 대표적 작품이 표도르 아브라모프 원작의 <형제자매들>. 1985년 초연된 이래 영국의 로렌스 올리비에에 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작품이다. 극은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독일에 승리한 후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빈곤하게 살아가지만 강한 생명력과 정신을 뿜어내는 민중을 그린다. 2001년 레프 도진의 다른 연출작인 <가우데아무스>가 공연되었던 LG아트센터에서 5월 20일, 21일 양일간 공연된다. 문의 2005-0114